

2014 기획포럼

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‘성적수치심’, 이대로 괜찮은가?

•일시: 2014년 10월 8일 (수) 오후3시 •장소: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

성평등도서관 여기



GL00002836

서울시여성가족재단

이제는 한국여성민우회
성폭력상담소

2.83
16스

GL00002836

00



우) 121-847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-10 시민공간 나루 3층
사무전화 02-739-8858 상담전화 02-335-1858
이메일 fc@womenlink.or.kr 홈페이지 fc.womenlink.or.kr



목차

발제

- 1P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‘성적수치심’, 이대로 괜찮은가?
- 정하경주(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)

토론

- 11p 성폭력의 특수성이자 보편성을 구성하는 ‘수치심’
- 나영정(성적지향·성별정체성 법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)
- 17p 성적수치심을 둘러싼 몇 가지 생각
- 백미순(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)
- 23p 수치심은 어떻게 그 모든 감정들의 이름이 되었나
- 손희정(땡땡책협동조합)
- 29p 형법적 관점에서 본 성적수치심
- 장다혜(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)
- 45p 성폭력에서 성적수치심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
- 조인섭(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)